군종주보

2026년 11월 29일(제1328호) 대림 제1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2027년 교구장 사목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품성사의 해"

사랑하는 군종 교구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부대에 충만히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군종교구장으로 착좌한 이후, 7성사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여정으로 매년 여러분을 초대하여 왔습니다. 성체와 세례성사, 고해와 견진성사, 그리고 지난해에는 '작은 가정교회를 이루는 혼인성사의 해'를 주제로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해 동안 800여 쌍의 부부가 혼인 갱신식에 함께 하였고, 각 가정에 교구장 '성가정 축복장'을 수여하였습니다. 특히 혼인 갱신식을 지켜보는 병사들은 미래에 배우자와 이루게 될 가정을 꿈꾸며, 자신들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7성사 가운데 여섯 번째 해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품성사의 해'**로 주제를 정하여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

하느님께서는 이사야를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느님의 소명(召命)에 바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큰일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이사 6,5) 하며 자신의 부당함을 고백합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부집게로 숯을 그의 입에 대시어 죄악을 없이하여 주십니다. 이를 통해 힘을 얻은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이사 6,8)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당당히 응답합니다.

구약의 모세와 많은 예언자들, 신약의 사도들과 예수님을 잉태하신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처음부터 하느님의 부르심에 즉각 호응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잉태 예고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루카 1,34) 하며 주춤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이 너를 덮으리라는 보증의 말씀을 듣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하며 순명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시어 이 세상에 나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저마다의 고유한 역할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간을 먼저 부르시는 하느님의 초대가 있고, 이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우리들은 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식별력과 용기를 가지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보편 사제직에로 초대하셨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46항-1547항)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왕직 · 예언자직 · 사제직'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희생의 제사에 세례받은 평신도들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편 사제직**이라고 부르며, 이와 함께 사도들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미사를 집전하고 성사를 거행하는 **직무 사제직**이 존재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 같은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이들이 바로 사제, 즉 여러분의 군종신부님들입니다.

<2면에 계속>

제 1 독 서	이사 63,16ㄹ-17.19ㄷㄹ; 64,2ㄴ-7
화 답 송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제 2 독 서	1코린 1,3-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 음	마르 13,33-37
영 성 체 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2027년 교구장 사목교서

보편 사제직은 세상 안에 살며 말씀을 증거하고, 매일의 삶에서 희생 제사를 봉헌하는 삶입니다. 직무 사제직은 본당의 신부님들의 직무입니다. 이분들은 미사를 집전하고, 각종 성사를 베풉니다. 만약 이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영성체를 할 수도 없고, 고해성사도 보지 못하고, 혼인의 축복도 받지 못하며, 자녀가 태어나도 유아세례를 받지 못하겠지요. 따라서 직무 사제직에 오르는 성품성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느님의 부르심, 이를 한자로 '성소'(聖召)라 하고,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합니다. 불리움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인간의 응답'**의 도식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우리 각자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성소는 무엇인가?' 결혼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아 자녀들과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신 신자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구의 젊은이들처럼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젊은 병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

'성소'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침묵과 기도 안에서 좋은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의 행복은 마침내 완성됩니다.

'다양한 성소가 꽃피는 교회'

2027년 한 해 동안, 특별히 사제 성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에서 사제 지원자가 많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근래에 우리나라의 사제, 수도자를 지망하는 젊은이가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마태 9,37-38)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잘 식별하여 우리 젊은 병사들 가운데서 사제, 수도자 지망생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군 가정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성소자가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군인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신학 과정을 마치고 성품성사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군종신부님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가 군인 신분이셨을 때 신학교에 입학하여 사제품을 받고, 현재 군종장교로 사목하시는 몇 분의 신부님들이 계십니다.

아울러 사제 성소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 성소에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세상 안에서 말씀을 전하며 봉헌의 삶을 사는 보편 사제직을 잘 수행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2027년 우리는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맞이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함께 신앙을 나누며 하나 된 가톨릭의 모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종교구는 이미 2025년 제1회 군종 청년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매년 청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 생활 중, 2박 3일 동안 같은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내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무척 의미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7년 8월 3일부터 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WYD에서 우리들은 레오 교황님을 직접 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선포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며,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종교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올 한해 우리 군종교구의 모든 성당과 부대,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르심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성모님께 결혼 성소와 사제, 수도자 성소를 꽃피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청하며,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도록 합시다. 모든 장병과 군 가족, 그리고 수녀님과 신부님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7년도, 사목지침을 위한 실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교황님, 주교님, 사제를 위한 기도문' 봉헌.
2. 군 복무 중인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기.
3. 본당 공동체 안에서 '세례명'으로 불러주기.
4. '보편 사제직' 적극 참여. (성경읽기 및 전교하기)
5. 군 자녀 / 병사 대상, '성소자 모임' 활성화.
6. 신학교, 수도원 방문하여 성소 계발.



2026년 대림 제1주일에
천주교 군종교구장 시상범 티토 주교

성화이야기

수태고지



얀 반 에이크(약 1390-1441), 1434-1436년경 제작
캔버스에 옮겨진 유화(원래 목판에 제작)
92.7 × 36.7cm / 국립미술관, 워싱턴 D.C.

본 작품은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님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임을 알리는 순간을 담고 있다. 가브리엘 천사는 화려한 보석과 금실로 장식된 예복을 입고 마리아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Ave gratia plena, *Dominus tecum*은 생략됨)라고 말하고 있다. 이 글귀는 마치 말풍선처럼 표현되어 있다. 성모님은 펼쳐진 성경에서 눈을 들어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Ecce ancilla Domini)라고 응답하는데, 성모님의 대답은 거꾸로 쓰여 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느님께서 읽으실 수 있도록 배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눈부신 색채다. 가브리엘 대천사의 황금빛 예복은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날개는 공작새의 깃털을 연상시키는 무지갯빛을 띠고 있는데, 이는 천상의 영광을 드러낸다. 성모님이 입고 계신 깊고 선명한 푸른색 옷은 순결과 천상의 은총을 상징한다. 화가는 여러 겹의 얇은 유화 물감을 쌓아 올리는 기법으로 가브리엘 대천사가 들고 있는 왕홀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의 투명함, 보석의 반짝임, 옷감의 부드러운 질감, 빛에 따라 달라지는 날개와 의복의 색조를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바닥에 풍성하게 펼쳐지는 성모님의 푸른 옷과 전경에 놓인 작은 의자의 붉은 벨벳 천까지 놀라울 만큼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성모님의 머리 위로는 창문을 통과한 7개의 빛줄기와 함께 성령을 상징하는 흰 비둘기가 내려오고 있다. 이는 성령에 의해 예수님이 잉태되는 신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빛이 유리창을 통과하면서도 유리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마리아의 동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잉태되었다는 중세 신학의 상징을 담고 있다. 성모님 곁의 흰 백합 역시 순결을 뜻하며, 성경이 펼쳐진 책상은 성모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 가브리엘 대천사의 방문을 받았음을 암시한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대림 제1주일: 강철 김진오 신부

◆ **교구장 동정**

- 백운(제56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11월 29일(주일)

- 2026년 영관급 군종사제 연수
  때·곳: 12월 3일(목)~4일(금), 아론의 집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품성사의 해"